

국민학생의 약물에 대한 태도와 남용경험 및 약물교육실태

김 정 순*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약물이란 음식물이 아닌 것으로서 신체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물질 전반을 총칭하며, 약물사용에는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한 의학적인 사용과 의학적 기준, 법규,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이탈하여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인 약물남용이 있다. 약물남용은 개인의 건강은 물론 사회의 기풍과 질서 그리고 국민건강의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청소년 약물남용자의 수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연령의 하향화, 약물남용과 비행과의 밀접한 상관관계(Chinlund, 1974) 등으로 인해 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의 특성상 극적인 요소가 많고 재적응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스트레스와 불안이 발생하며 또한 주변 또래 친구들의 압력을 무척 많이 받는 시기이므로 약물에 특히 취약한 시기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의학적인 목적으로 각종 약물에 의존할 가능성이 큰 현실에 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약물을 규칙적으로 쓰기 시작하는 연령은 13세 이후로 알려져 있으나, 본드나 신나와 같은 휘발성 유기용제의 사용은 국민학교 저학년 아동에서도 보고되고 있다(김상희 등, 1991). 그러므로 국민학교 단계에서부터 약물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약물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무엇보다도 예방교육이 중요하다. 일단 약물남용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치료나 회복이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약물과 접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교육의 실시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보건사회부, 1993), 이는 국민학교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중·고등학교 과정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발달수준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약물남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집단에서 어느 정도로 남용되고 있는가 즉 남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와같은 남용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약물에 대한 태도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약물에 대한 태도와 남용행위와는 깊은 상관이 존재하는데 약물에 대한 그릇된 태도가 남용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오늘날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약물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민학교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약물남용예방지도가 실시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현실정은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약물남용예방교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육이 정규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약물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된 약물관련 연구가 대부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어졌기 때문에 국민학생들의 약물남용실태 및 약물에 대한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시내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국민학생들의 약물에 대한 태도와 남용경험 및 약물교육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국민학교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약물남용예방지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청소년 약물남용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 1) 국민학생들의 약물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 2) 국민학생들의 약물남용경험은 어떠한가?
- 3) 국민학생들의 약물교육실태는 어떠한가?

II. 문헌고찰

1. 우리나라의 약물남용실태

일반적으로 약물남용은 향정신성약물(psychotropic drug)의 비의학적 사용을 말한다. 향정신성약물이란 정신에 작용하는 약물로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적 의존을 일으키는 습관성(habituation)과 육체적 의존을 일으키는 중독성(addiction)을 유발한다(박명윤, 1991). 정신적 의존성이란 약물사용을 중단했을 경우 사용자의 생각이 약물로 가득차게 된다든지 사용 당시 쾌감 및 감정의 변화를 갈망하는 상태이며, 육체적 의존성이란 약물남용으로 인하여 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상태, 즉 내성(tolerance)이 생기며 금단증상 때문에 자의적으로 약물사용을 중단하고 싶어도 중단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약물남용의 목적은 남용자가 원하는 정신상태에 이르러자 하는 데 있다. 정신상태의 변화를 초래하는 약물은 그 종류가 다양하여 분류가 쉽지 않으나, 현대의 중독학에서 이야기하는 습관 중독성 물질은 크게 3가지 계열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중추신경흥분제(central nervous stimulants), 억제시키는 중추신경억제제(CNS depressants), 흥분시키기도 하고 억제시키기도 하는 환각제

(psychodelics) 등이다(보건사회부, 1993). 중추신경 흥분제로서는 카페인(커피), 니코틴(담배), 신탄(Xantine, 초콜렛), 코카인(Cocaine), 히로뽕(Methamphetamine) 등이 있다. 중추신경 억제제로서는 아편제제, 알코올, 수면제, 항불안제(신경안정제), 본드나 가스과 같은 흡입제(유기용제) 등이 있다. 환각제는 중추신경계에 흥분제는 대마초(마리화나, happy smoke), LSD 등이 있다.

약물남용은 원래 원주민들의 종교의식에서 비롯되었지만 현대적 의미를 갖는 약물남용행위는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들 젊은이들에 의해 전세계에 퍼졌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었던 남용 약물은 1960년대까지는 아편, 1970년대에는 대마초가 주로 남용되다가 1980년대에는 히로뽕이 남용되기 시작하였으나, 1990년대에는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본드, 가스 등 휘발성물질과 일반 대중의약품이 널리 사용되어 엄격한 규제 또는 관리가 어려운 기침약 등 일반 약물 남용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향후 코카인과 LSD가 더해진 복합약물의 남용이 예측되고 있다(보건사회부, 1992).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차원의 조사가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약물남용실태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대검이 지난 1988년부터 1993년까지 국내 마약류 범죄유형을 분석한 「마약류 범죄 백서」에 의하면, 1993년에는 마약류 사범이 전년에 비해 128% 증가하였으며 최근 들어서는 다시 대마흡연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당국의 강력한 단속으로 히로뽕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일부 한약 재료상이나 건재상에서 판매하고 있고 산이나 들에 야생 산재해 있어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비교적 값이 싸고 중독성이 없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는 대마에 대한 그릇된 인식 때문이라 하며 1994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대마초 흡연자는 1천5백여명이나 된다(주왕기, 1992).

현재 우리나라의 약물남용문제는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심각한데, 1980년대에 들어와서 교복자율화로 상징되는 학원의 자율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다.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흔히 술이나 담배의 실험적 및 오락적 사용으로부터 시작되어 본드, 가스, 약 등의 약물을 선택하게 되며 나이가 좀 더 들에 따라 대마, 마약류 등의 약물을 남용하게 된다(김상희, 1991). 한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왕기(1990)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 학생들은 음주 68.2%, 흡연 37.1%, 대마 2.2%, 코카인 1.1%, 각성제 17%, 필로폰 0.5%, 마약 0.5%, 환각제 1.5%, 본드 3.2%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연숙(1990)의 연구에서는 각성제 15.6%, 안정제 1.4%, 최면제 0.5%, 마약류 1.5%, 본드 1.4%, 신나 0.5%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남정자 등(1989)의 연구에서는 신경안정제 6.7%, 최면제 3.3%, 각성제 9.1%, 환각제 2.8%, 마약제 1.2%를 보고하였다. 또한, 부산시 청소년 상담실이 1994년 부산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국제신문, 1994)에서는 7.1%가 약물이나 환각제 사용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남용 약물로는 본드 63.6%, 부탄가스 10.1%, 각성제 9.3%, 마약류 2.3% 였다.

이와같은 청소년 약물남용은 남용청소년의 수적 증가뿐만 아니라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김성이 등(1989)과, 조연숙(1990)의 보고에 의하면 약물의 초기 사용자가 집중되어 있는 층은 13-14세로 대부분 중학생층으로 나타나 약물남용이 시작되기 이전인 국민학교단계에서부터 약물남용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세워져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2. 약물남용예방대책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대책은 약물사용의 주체가 되는 청소년, 직접적인 원인물질인 약물, 약물문제를 일으키도록 조장하는 주위환경 등 복합적인 원인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즉 청소년 개인이 정신적으로 강하고 성숙되어 있으면 약물에 빠질 위험성은 줄어들며, 가정, 학교, 사회 전반에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역시 약물사용 위험성은 많이 준다. 또한 약이 없거나 약을 구할 수가 없으면 자연히 약물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의 약물문제는 가정, 학교,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공통과제이다(부산직할시교육청, 1991).

약물남용예방의 근본적 목적은 약물남용자가 사회의 건전한 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약물남용예방지도는 약물남용의 취약점이 가장 높은 시기인 청소년기 이전 즉 국민학교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중·고등학교과정으

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물남용예방대책은 일차예방, 이차예방, 삼차예방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복자, 1991)..

1) 약물남용의 일차예방: 약물남용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약물남용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약물남용행위를 억제하고 거부할 수 있게 해주는 약물교육, 남용되는 약물의 구입을 법적으로 억제하는 법적제재의 강화, 그 밖에 약물남용의 유발요인 제거 등이 중요하며 좁은 의미의 약물남용예방대책은 일차예방을 의미한다.

2) 약물남용의 이차예방: 약물남용자를 조기발견하여 조기치료하는 것으로서 약물남용의 진행과 지속적인 사용을 막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약물남용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후를 세밀히 관찰해보고, 약물남용으로 진단되는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인되는 약물을 차단시키는 것이다. 이와함께 자아개념의 확립, 지구력·정신력·저항력의 강화, 가족관계 개선, 친구관계 개선 등을 위한 개인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등이 필요하다.

3) 약물남용의 삼차예방: 약물남용으로 인한 기능상실을 예방하는 것으로 원래의 기능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재활치료를 의미한다.

이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약물남용예방대책은 약물을 남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일차예방이다. 약물남용문제는 일단 한 번 발생하면 평생의 문제로 남으며, 치료의 성공율도 무척 낮다. 따라서 약물문제가 애초부터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제일 효과적이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대표적인 집단으로서 부모와 교사를 주요 대상집단으로 하여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김상희, 1991).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물남용예방교육: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물교육은 국민학교 단계에서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내용은 약물의 특성, 약물이 잘못 사용되는 사례, 약물이 인체에 미치는 해독, 약물남용의 부도덕성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물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약물남용의 부도덕성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약물의 해독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약물남용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 자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약물남용예방교육 : 약물남용 청소년의 부모는 자녀의 약물남용문제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부모들이 자녀의 약물남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부모가 약물남용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므로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약물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교육내용으로는 약물에 관한 지식과 더불어 청소년의 약물남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지도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약물남용예방교육 :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비행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부모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교사들이 청소년의 약물남용문제를 실질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약물남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교육내용으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교육프로그램의 지도방법과 다양한 약물남용 예방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부산시내 국민학교를 먼저 4개 학군별로 분류한 후 각 학군에서 2개교씩 총 8개교를 임의표출하였다. 다음 표출된 각 학교에서 5, 6학년 1학급씩을 다시 임의로 표출하였고 표본으로 선정된 각 학급은 전수조사하였다. 선정된 725명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45명을 제외한 총 680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로는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토대로 작성한 후 국민학교 5, 6학년 1학급씩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 것이었다. 설문지의 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14문항, 약물에 대한 태도에 관한 13문항, 약물남용경험에 관한 11문항, 약물교육에 관한 7문항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수집방법

1994년 7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유의사항과 함께 설문지를 양호교사에게 전해주었으며, 양호교사가 각 학급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연구의 목적과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에 학생들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자료를 회수하였다. 조사시간은 대략 15~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응답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집자로 담임선생님을 피하였으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자료가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줄 것을 강조하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약물남용경험 및 약물교육실태는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약물에 대한 태도는 평균을 구하였고, 성별 약물에 대한 태도의 차이분석은 t-test를 이용하였고, 약물에 대한 태도와 약물남용경험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대상자의 성별분포는 남학생이 전체의 49.1%, 여학생이 50.9%로 여학생의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 분포는 6학년이 56.0%, 5학년이 44.0%로 6학년이 다소 많았다.

종교는 전체의 82.2%가 가지고 있었으며, 불교가 47.4%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20.6%, 천주교 10.9%, 기타 3.4%였으며 없는 경우도 17.8%였다. 생활수준은 응답자 스스로가 인지한 정도로서 "아주 잘 산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1.6%였고, "잘사는 편이다"가 36.6%, "보통 먹고 살 정도이다"가 56.6%로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가정행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고등학교 중퇴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전체의 74.1%였으며, 어머니는 65.6%로 아버지의 학력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사무직이 2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상업 24.1%, 기술직 19.3%, 단순노동 17.8%였으며, 어머니는 가사가 5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상업 20.1%, 단순노동 17.1%, 사무직 6.6%, 전문직 1.3%였다(표 1).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실 수	백분율
성별		
남	334	49.1
여	346	50.9
학년		
5학년	299	44.0
6학년	381	56.0
종교		
불교	322	47.4
기독교	140	20.6
천주교	74	10.9
기타	23	3.4
없음	121	17.8
생활수준		
아주 잘 산다	11	1.6
잘 사는 편이다	249	36.6
보통 먹고 살 정도이다	385	56.6
약간 조들린다	27	4.0
아주 조들리는 편이다	5	0.7
무응답	3	0.4
부의 교육수준		
무학	6	0.9
국민학교 중퇴 또는 졸업	45	6.6
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	103	15.1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317	46.6
대학교 중퇴 또는 졸업	160	23.5
대학원 이상	27	4.0
무응답	22	3.2
모의 교육수준		
무학	11	1.6
국민학교 중퇴 또는 졸업	64	9.4
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	144	21.2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357	52.5
대학교 중퇴 또는 졸업	74	10.9
대학원 이상	15	2.2
무응답	15	2.2
부의 직업		
전문직	28	4.1
사무직	185	27.2
기술직	131	19.3
상업	164	24.1

특 성	실 수	백분율
단순노동	121	17.8
무직	18	2.6
기타	5	0.7
무응답	28	4.1
모의 직업		
전문직	9	1.3
사무직	45	6.6
기술직	13	1.9
상업	137	20.1
단순노동	116	17.1
가사	340	50.0
기타	1	0.1
무응답	19	2.8

2. 약물에 대한 태도

조사대상 국민학생들의 약물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13문항을 조사하였으며, 설문내용은 크게 5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약물사용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들로서 ①, ②, ③, ④번 문항이다. 둘째는 약물의 사회적 규제에 대한 태도로서 ⑤, ⑥번 문항이다. 셋째는 약물사용에 대한 수용성으로서 ⑦, ⑧, ⑨, ⑫번 문항이다. 넷째는 약물사용에 대한 도덕적 판단으로서 ⑩, ⑪, ⑬번 문항이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정말 그렇다” 1점, “그저 그렇다” 2점, “그렇지 않다”에 3점을 부여하였으며, 긍정적인 태도로 간주되는 ③, ⑦, ⑩, ⑪, ⑫, ⑬번 문항에 대해서는 점수를 역으로 부여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약물에 대해서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에 대한 평균 태도점수는 〈표 2〉와 같다.

13개 문항의 태도점수를 모두 합한 총 태도점수는 평균 36.08점으로 조사대상 국민학생들은 약물에 대해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항목 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평균 2점 이상(범위 2.35~2.91점)으로 대체로 바람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중 가장 태도점수가 높은 항목은 “아무리 친한 친구가 권하더라도 그것이 해로운 약물일 때는 나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와 “히로뽕, 아편 등과 같은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감옥에 수감되어야 한다”로서 평균 2.91점이었다. 반면에 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대학교 시절에는 음주·흡연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로 평균 2.35점이었다. 이

〈표 2〉 약물에 대한 태도

(n=680)

구 분	전 체	성 별	
		남	여
총 태도 점수 (M)	36.08	35.63	36.51
(SD)	2.74	2.92	2.54
		t=17.3583 P= 0.0000***	
① 흡연은 복잡한 문제를 생각할 때 정신을 집중시켜준다.	2.78 0.47	2.78 0.47	2.79 0.47
		t=0.0431 P=0.8356	
② 흡연이나 음주는 친한 친구를 사귀는 데 도움을 준다.	2.78 0.42	2.85 0.44	2.88 0.40
		t=0.6222 P=0.4305	
③ 흡연이나 음주는 건강에 해를 끼친다.	2.86 0.46	2.85 0.50	2.88 0.43
		t=0.7729 P=0.3796	
④ 흡연이나 음주는 피로를 회복시켜준다.	2.82 0.46	2.79 0.49	2.84 0.42
		t=2.0956 P=0.1482	
⑤ 고등학교 시절에는 음주·흡연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2.87 0.38	2.82 0.43	2.92 0.31
		t=13.3051 P= 0.0003***	
⑥ 대학교 시절에는 음주·흡연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2.35 0.67	2.29 0.67	2.41 0.64
		t=5.7679 P=0.0166*	
⑦ 나는 어른이 되면 흡연이나 음주는 하지 않을 생각이다.	2.55 0.69	2.39 0.73	2.71 0.61
		t=40.4429 P= 0.0000***	
⑧ TV등에서 흡연이나 음주장면을 보면 멋있어 보인다.	2.62 0.61	2.55 0.67	2.69 0.53
		t=8.7536 P=0.0032**	
⑨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음주·흡연하는 것은 좋아보인다.	2.88 0.34	2.86 0.38	2.91 0.30
		t=4.3641 P=0.0371*	

구 분	전 체	성 별	
		남	여
⑩ 본드나 가스 등의 해로운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2.87 0.45	2.87 0.44	2.87 0.46
		t=0.0437 P=0.8344	
⑪ 병을 낫게 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어떤 약물이든지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2.78 0.50	2.79 0.49	2.76 0.52
		t=0.8755 P=0.3498	
⑫ 아무리 친한 친구가 권하더라도 그것이 해로운 약물일 때는 나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	2.91 0.38	2.89 0.42	2.93 0.33
		t=1.7634 P=0.1847	
⑬ 히로뽕, 아편 등과 같은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감옥에 수감되어야 한다.	2.91 0.39	2.90 0.40	2.92 0.37
		t=0.3685 P=0.5400	

M : Mean, S. D : Standard Deviation

* P<0.05, ** P<0.01, *** P<0.001

로 미루어 볼 때 국민학생들은 현재는 약물남용에 대해서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대학교 시절의 음주·흡연에 대해서는 비교적 허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때에 가서는 실제로 남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학생들의 약물에 대한 태도를 남·여 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남학생이 평균 35.63점인데 비해 여학생은 36.51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물에 대해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었다(P<0.001). 한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음주, 흡연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남 정자 등(1989)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바람직한 태도를 보였다.

이를 개개 항목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남·여 집단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고등학교 시절에는 음주·흡연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와 “대학교 시절에는 음주·흡연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른이 되면 흡연이나 음주를 하지 않을 생각이다”, “T·V 등에서 흡연이나 음주장면을 보면 멋있어 보인다”,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음주나 흡연하는 것은 좋아 보인다” 등의 5개 항목으로서, 모든 항목에서 여학생의 태도점수가 남학생보

다 높았다. 이와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국민학교 남학생들은 고등학교 시기 이후의 음주나 흡연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실제로 그때 가서는 남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음주, 흡연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남정자 등(1989)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태도점수가 낮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와같은 결과는 남자들의 흡연이나 음주에 대해서 비교적 허용적인 우리나라 사회통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약물에 대한 태도와 남용행위와는 깊은 상관성이 존재하므로 특히 남학생들의 흡연이나 음주에 대한 태도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국민학교 단계에서부터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약물남용 청소년들은 약물에 대해 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약물사용 자체가 정상적인 행위라고 믿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물을 사용한다고 믿기 때문에 쉽게 약물을 남용하게 된다(보건사회부, 1993). 그러므로 청소년의 약물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약물에 대한 태도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예방지도가 실시되어야 하겠다.

3. 약물남용경험

약물남용은 국민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기아에 허덕이는 빈곤한 국가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 반면 생활수준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문제가 심각하다(권순경, 1989).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본드 등의 약물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사회단체 및 언론기관에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약물을 남용하는 청소년들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사용해 본 약물의 종류가 많아지고, 각 연령집단별로 선호하는 약물이 달라진다. 김상희 등(199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아지고, 남용한 약물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좀더 환각효과가 강력한 약물로 대처하게 되는데, 가장 전형적인 약물남용의 단계는 담배의 사용을 시발로 하여 술, 본드, 가스, 약, 대마, 메스암페타민, 마약으로 진전되는 형태를 띠게 된다.

청소년들이 담배, 술, 본드를 처음으로 사용한 나이는 평균 14세이나 빠른 경우 국민학교 저학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 약물남용예방지도는 국민학교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상집단이 어느 정도로 약물을 경험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요구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민학생들이 흔히 남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약물인 담배, 술, 본드 및 가스흡입 경험을 조사하였다.

1) 흡연경험

조사대상 국민학생의 5.9%가 흡연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 빈도는 모두 “몇 번 피워 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흡연동기는 “호기심에서”가 7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로 10.0%였다<표 3>.

이같은 결과는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른 연구를 발견할 수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숙련(1995)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흡연경험이 16.3%이고 고등학생이 33.3%이었으며, 중학생 흡연경험자 중 39.1%가 이미 국민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고 응답한 점을 고려할 때 상당 수의 국민학생들이 이미 흡연을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흡연경험

구 분	실 수	백분율
흡연경험		
한 번도 없다	640	94.1
몇 번 피워본 적이 있다	40	5.9
가끔씩 피운다	-	-
자주 피운다	-	-
흡연동기		
호기심에서	31	77.5
욕구불만 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1	2.5
친구의 권유에 의해	4	10.0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1	2.5
어른들이 하니까	1	2.5
기타	1	2.5
무응답	1	2.5

2) 음주경험

음주경험이 있는 국민학생은 전체의 39.8%로 나타났으며, 음주빈도는 “몇 번 마셔 본 적이 있다”가 37.5%, “가끔씩 마신다”가 2.2%, “자주 마신다”가 0.1%였다.

음주동기는 “호기심에서”가 5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구의 권유에 의해” 7.4%, “어른들이 하니까” 7.0% 등이었다. 또한 음주동기로 기타가 26.9%를 차지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명절(정월 대보름, 추석, 설날 등) 때나, 수학여행 또는 소풍 가서 마신 경우였다<표 4>.

이와 같이 본 조사대상 국민학생들의 음주 경험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몇 번 마셔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포함시켰기 때문이고 음주경험자 중 대부분의 학생들이 몇 번 마셔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음주횟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에서 마시기 시작하다가 차츰 알코올의 기능을 알게되며, 이때에 가서는 어떤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므로 점차 음주횟수와 양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초기 단계에서 술의 해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부산시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주경험을 조사한 이숙련(1995)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10.5%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마신다고 했고, 1.2%의 학생들은 일주일에 1회 이상 마신다고 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26.3%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마신다고 했고, 6.6%의 학생들은 일주일에 1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들 중 47.4%의 학생들이 이미 국민학교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응답함으로써 높은 음주경험율을 나타낸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표 4〉 음주경험 (n=680)

구 분	실 수	백분율
음주경험		
한번도 없다	409	60.2
몇 번 마셔 본 적이 있다	255	37.5
가끔씩 마신다	15	2.2
자주 마신다	1	0.1
음주동기		
호기심에서	137	50.5
욕구불만 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8	3.0
친구의 권유에 의해	20	7.4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4	1.5
어른들이 하니까	19	7.0
기타	73	26.9
무응답	10	3.7

3) 본드, 가스흡입경험

조사대상 국민학생의 1.8%가 본드 및 가스흡입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흡입빈도는 모두가 “몇 번 마셔 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흡입동기는 “호기심에서”가 58.4%로 가장 많았고, “친구의 권유에 의해” 33.3%,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8.3%였다(표 5).

〈표 5〉 본드, 가스 흡입경험 (n=680)

구 분	실 수	백분율
본드, 가스흡입 경험		
한번도 없다	668	98.2
몇 번 마셔 본 적이 있다	12	1.8
가끔씩 마신다	-	-
자주 마신다	-	-
흡입동기		
호기심에서	7	58.4
욕구불만 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	-
친구의 권유에 의해	4	33.3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1	8.3
어른들이 하니까	-	-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조사대상 국민학생들의 본드, 가스 흡입경험율은 크게 높지 않으나, 8.3%의 학생들이 기분이 좋아지기 위한 목적으로 본드를 사용한다고 응답함으로써 단순한 호기심에서가 아니라 탐닉을 목적으로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심히 우려

된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본드나 가스는 약물남용의 초기단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것으로서 나이가 들에 따라 점점 더 효과가 강력한 약물로 종류를 바꾸게 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국민학생들의 본드, 가스 흡입은 향후 더 깊은 단계로의 약물남용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의 근절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겠다.

4) 성별 약물남용경험률

조사대상 국민학생의 약물남용경험 정도를 남·여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6).

〈표 6〉 성별 약물남용경험률

구 분	전체			X ²	P
	실수(%)	남(%)	여(%)		
흡연경험률	40(5.9)	32(9.6)	8(1.2)	14.932	0.0001**
음주경험률	271(39.8)	171(51.2)	100(28.9)	37.636	0.0000**
가스·본드경험률	12(1.8)	10(3.0)	2(0.6)	4.413	0.0357*

* P<0.05, ** P<0.001

전체 대상자 중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은 남자 9.6%, 여자 1.2%로 남자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음주경험이 있는 학생은 남자 51.2%, 여자 28.9%로 남자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가스, 본드흡입경험이 있는 학생은 남자 3.0%, 여자 0.6%로 역시 남자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이와 같이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약물남용경험률이 높은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남학생의 약물에 대한 태도가 여학생보다 바람직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특히 남학생들에 대한 약물남용예방지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5) 약물에 대한 태도와 약물남용경험간의 관계

조사대상 국민학생들은 약물에 대한 태도가 건전할수록 약물남용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약물에 대한 태도점수가 높을수록 음주, 흡연, 가스, 본드 흡입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표 7).

〈표 7〉 약물에 대한 태도와 약물남용경험간의 관계

구 분	음주정도	흡연정도	가스·본드흡입정도
태도점수	-.2547**	-.1609**	-.1775*

** P<.001

약물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약물에 대해서 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약물사용 자체가 정상적인 행위라고 믿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물을 사용한다고 믿는다(보건사회부, 1993) 그릇된 태도로 인해 쉽게 약물을 남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예방교육을 통해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습득하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부정적인 태도와 행위를 긍정적 태도와 행위로 변화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Green et al., 1980).

4. 약물교육현황

청소년기는 경험 자체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약물남용의 위험성도 성인들 보다 빠르게 나타난다. 성인형의 약물중독상황이 청소년기부터 나타나지는 않지만, 약물사용의 시작과 약물중독의 뿌리는 이미 청소년기부터 시작된다. 일단 약물중독이 발생하면 평생의 문제로 남으며, 치료의 성공율도 무척 낮다. 따라서 약물문제가 애초부터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예방교육이 제일 효과적이다. 또한 예방교육이 제일 필요하고, 교육에의 접근이 가장 용이한 것이 학교차원의 예방교육이다(보건사회부, 1993).

미국에서는 약물남용을 그대로 방치하였다가는 청소년은 물론 사회 자체가 약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특히 학교보건과정에서 “약물남용으로 인한 위기”, “마약에 대한 유혹으로부터의 대응방법”, “약물남용에 관한 기본법규” 등을 폭 넓게 다루고 있다(Packer와 Bower, 1980).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체계화된 학교약물예방교육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학생들의 약물에 대한 지식정도와 약물교육 요구 및 약물교육현황을 조사함으로써 국민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약물교육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약물에 관한 지식정도

조사대상 국민학생 스스로가 인지한 자신의 약물에 관한 지식정도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20.4%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그저 그렇다” 54.4%, “잘 모르고 있다” 25.0%로 스스로가 인지한 약물에 관한 지식정도는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표 8〉 약물에 관한 지식정도

문 항	실수	백분율
술·담배 및 약물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해로운 약물의 종류, 사용시 주의점 등에 관해서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잘 알고 있다.	139	20.4
그저 그렇다.	370	54.4
잘 모르고 있다.	170	25.0
무응답	1	0.1

2) 약물교육요구

약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65.9%의 학생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고 “그저 그렇다” 19.0%, “필요없다” 15.1%로 나타나 약물교육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았다. 그리고 교육실시자로서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양호선생님이 4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담임선생님 34.4%, 부모 9.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9).

〈표 9〉 약물교육요구

문 항	실수	백분율
학교에서 술, 담배, 약물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해로운 약물의 종류, 사용시 주의점 등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꼭 필요하다.	448	65.9
그저 그렇다.	129	19.0
필요 없다.	103	15.1
교육을 실시한다면 누가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담임 선생님	234	34.4
양호 선생님	331	48.7
부모	61	9.0
기타	50	7.4
무응답	4	0.6

3) 약물교육현황

조사대상 국민학생의 38.2%만이 학교에서 약물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61.8%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6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실시자를 물어보았을 때 담임선생님이 62.0%로 가장 많았고, 양호선생님이 4.2%였으며, 기타가 33.8%였다. 기타는 교육위원회나 사회단체로부터 교육자가

파견되어 일시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였다.

다음으로 부모로부터 약물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을 때 43.8%의 학생들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55.9%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라디오나 TV 등과 같은 매스컴에서 약물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63.5%의 학생들이 있다고 하였고 36.2%가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10).

〈표 10〉 약물교육현황

문항	실수	백분율
<u>학교에서 술, 담배 및 약물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해로운 약물의 종류, 사용시 주의점 등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나요?</u>		
예	260	38.2
아니요	420	61.8
<u>있다면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u>		
양호 선생님	11	4.2
담임 선생님	161	62.0
기타	88	33.8
<u>부모님으로부터 위의 내용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u>		
예	298	43.8
아니요	380	55.9
무응답	2	0.3
<u>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에서 위의 내용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u>		
예	432	63.5
아니요	246	36.2
무응답	2	0.3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본 조사대상 국민학생들은 스스로가 약물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약물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교육실시자로는 양호교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학교에서 약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38.2%에 불과하였으며 실제로 더 많은 학생들이 매스컴(63.5%)이나 부모(43.8%)로부터 약물에 관한 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양호교사가 약물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4.2%에 불과해 효율적인 약물예방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약물을 규칙적

으로 쓰기 시작하는 연령은 13세 이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드와 신나같은 휘발성 유기용매의 사용은 9세부터 시작되며 잔혹 7세 아동에서 보고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어린시절에 가정에서부터 약물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이 약물교육을 받지 못했으므로 가정에서의 효과적인 약물교육을 기대하기 곤란하다(고복자, 1991). 그러므로 국민학교 과정에서부터 단계별로 철저한 약물교육이 시행되고 중·고등학교과정에서 반복,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보건과목이 독립적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은 채 건강관련내용이 관련교과에 분산되어 있어 건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약물예방교육 또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매년 1회에 한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된 음주·흡연 및 약물오남용예방지도계획을 마련,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 시달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어 체계적인 약물남용예방대책의 마련이 절실하다.

V. 결 론

본 연구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국민학생의 약물에 대한 태도와 남용경험 및 약물교육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국민학교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약물남용예방지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청소년 약물남용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산지역 4개 학군에서 2개교씩 표출된 8개교의 5, 6학년 1개 학급생 68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본 연구자가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1994년 7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양호교사가 각 학급에서 유의사항과 함께 설문지를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를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실수 및 백분율, t-test, Pearson's correlation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국민학생들의 약물에 대한 태도점수는 평균 36.08점으로 대체로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물에 대한 태도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대학교시절에는 음주, 흡연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로 대학교시절의 음주, 흡연에

대해서는 비교적 허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약물에 대한 태도를 남·여 집단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남학생 35.63점, 여학생 36.51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물에 대해 더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2) 흡연경험율은 5.9%로 나타났으며, 흡연동기는 “호기심”에서가 77.5%로 가장 높았다.

3) 음주경험율은 39.8%로 나타났으며, 음주동기는 “호기심에서”가 50.5%로 가장 높았다.

4) 본드, 가스흡입경험율은 1.8%로 나타났으며, 흡입동기는 “호기심”에서가 58.4%로 가장 높았다.

5)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은 남자 9.6%, 여자 1.2%로 남자가 유의하게 높았고($P < 0.001$), 음주경험은 남자 51.2%, 여자 28.9%로 남자가 유의하게 높았으며($P < 0.001$), 가스, 본드 흡입경험 역시 남자 3.0%, 여자 0.6%로 남자가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6) 약물에 대한 태도점수가 높을수록 음주, 흡연 및 가스, 본드 흡입경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 < .001$).

7) 스스로가 인지한 약물에 관한 지식정도는 전체 학생의 20.4%만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는 “그저 그렇다” 54.4%, “잘 모르고 있다” 25.0%로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 약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65.9%의 학생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여 높은 요구를 보였다. 교육 실시자로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양호교사가 48.7%로 가장 높았다.

9) 38.2%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약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43.8%의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약물교육을 받았으며, 63.5%의 학생들이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에서 약물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상당수의 국민학생들이 이미 약물남용의 초기단계인 흡연, 음주 및 가스·본드흡입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계적인 약물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약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없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남용되고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약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약물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약물예방교육의 실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체계적인 약물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서 포함시키고 전문 보건지식을 갖춘 양호교사로 하여금 약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고복자(1991).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학교의 예방 대책. 제25회 청소년문제연구 심포지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38-58.
- 국제신문. 1994. 12. 2일자.
- 권순경(1989). 중·고등학생의 약물남용실태조사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의 약 자원개발연구소.
- 김상희 등(1991). 청소년 약물남용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남정자 등(1989). 학교보건교육개선에 관한 연구(Ⅱ).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박명운(1991). 청소년 약물남용현황. 제25회 청소년문제연구심포지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20.
- 보건사회부(1992). 마약 등 약물남용예방.
- 보건사회부(1993). 학교청소년 약물오남용예방교육교재.
- 부산직할시 교육청(1991). 약물오남용예방지도 자료.
- 이숙련(1995). 부산시내 중·고등학생의 약물에 대한 태도와 남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
- 조연숙(1990). 고등학생의 약물남용실태.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권 1호. 101-118.
- 주왕기(1990). 한국 청소년의 약물남용실태와 예방대책. 한·일 청소년문제연구소 세미나자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5-28.
- 주왕기(1992). 청소년의 약물남용실태와 대책. 한국학교보건학회지. 5권 2호. 31-37.
- Chinlund, S.(1974). Juvenile Offenders and the Drug Problem, in Problems of Adolescents. Ed. by Hardy, R. E. and Cull, J. G., Illinois, Thomas.
- Gould, L. C. et al.(1977). Sequential Patterns of Multiple-Drug Use among High School Students. Arch Gen Psychiatry. Vol 34. 216-222.
- Green, L. W. et al.(1980). Health Education Planning-A Diagnostic Approach-the Johns Hopkins University. Mayfield Publishing Co..
- Johnson, L. D. et al.(1982). Student Drug Use. Attitudes and Beliefs. NIDA.

Kandel, D. et al.(1975). Sequence and Stages in Patterns of Adolescent Drug Use, Arch Gen Psychiatry. Vol 32. 923-932.

Packer, K. L., Bower, J.(1980). Lets Talk about Health-Teachers Edition Cebco Standard Publishing. Standex Co..

-Abstract-

Key words : Drug Abuse, Drug Education

The Study on the Attitude about Drugs, the Actual Conditions on Drug Abuse and Drug Education of Primary School Students

*Jung-Soon Kim**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suggest the need for drug prevention program in primary school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preventing the youth from their drug abuse. A total of 680 students of primary school in Pusan were selected to answer this questionair. The data was collected from July 1 to July 15, 1994.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 1) The attitude about drugs of primary school students was desirable. By groups, girl students showed more desirable attitude than boy students.
- 2) 5.9% of subjects had smoking experience, and for the motives of smoking 77.5% of them, the largest numbers, was with curiosity.
- 3) 39.8% of subjects had experienced alcohol use, and for the motives alcohol use 50.5% of them, the largest numbers, was with curiosity.
- 4) 1.8% of subjects had experienced inhalants (gas, butane gas), and for the motives of inhalants use 58.4% of them, the largest numbers, was also with curiosity.
- 5) The rates of smoking, alcohol use and inhalants use were higher in boy students than girl students.
- 6) The attitude points about drugs in case of smoking, alcohol use and inhalants use were lower than the points in case of not using them.
- 7) Knowledge level about drugs of subjects was appeared poor.
- 8) For the need of drug education 65.9% of subjects responded "necessary", and they responded most suitable educator as school nurse.
- 9) The students had received drug education from school in 38.2%, from their parents in 8% and from mass media in 63.5%.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